

석북 신광수 가문의 「월주수창록(越州酬唱錄)」의 비평적 특징*

채지수**

- I. 서론
- II. 「월주수창록」의 산출 배경과 문헌의 내용
- III. 가문 소장 문서의 비평적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석북 신광수의 다섯 아들 가운데 신우상·신이상(신기상)·신위상이 함께 창작한 「월주수창록」의 작품 양상과 비평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월주수창록」은 1772년(영조 48) 9월 영월 부사로 임명된 신광수를 배행한 아들 세 명이 수창한 한시 작품들을 지칭한다. 현재 신우상·신이상의 문집에 작품 일부가 수록되어 있고, 석북 후손가에 소장된 두루마기 형태의 문서가 있다. 본고는 세 문서를 대조하여 작품 현황을 파악하였고, 가문 소장 문서의 비평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신우상 삼형제는 영월에 유배당한 단종의 예사(哀史)와 한(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영월의 자연 경물과 두견새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가문 소장 문서의 비평자는 이들이 7언절구에서 자연 경물을 통해 함축적이고 완곡하게 주제 의식을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직접적인 감정의 노출과 서술형의 시어 사용을 지양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작자와 비평자의 당시풍(唐詩風)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6170).

** 단국대학교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연구교수

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또 『시경(詩經)』 국풍(國風) 정신의 강조, 자연 속에서 발현된 문학적 성취의 중시 등은 근기 남인 사이에 공유되던 시 의식과 상당 부분 합치되어, 비평자가 근기 남인의 시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우상 삼형제가 근기 남인의 문학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강원도 영월, 단종, 근기 남인, 한시 비평, 신우상, 신이상(신기상)

1. 서론

본고의 연구 대상인 『월주수창록(越州酬唱錄)』은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아들 신우상(申禹相, 1730~1799)·신이상(申履相, 1732~1800)¹⁾·신위상(申渭相, 1735~1786) 형제가 영월 부사로 부임한 부친을 따라가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창작한 한시 작품집이다. 신광수는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부친의 인맥을 이어받아 근기 남인 인사들과의 교유관계를 유지하였고,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첫째 신우상과 둘째 신이상은 넷째 신석상과 함께 부친 신광수와 숙부 신광하를 이어 근기 남인 문단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체제공·정범조·목만중의 시회(詩會)에 신광수·신광하를 따라 참석하며 근기 남인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였고, 문학적·정치적 방향성과 관련하여 근기 남인 문사들의 영향을 받았다.²⁾ 그들은 관료로서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남인 문단 내에서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우상은 제술(製述) 시험에서 ‘문장을 잘한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고,³⁾ 신석상은 정범조·목만중의 기대와

1) 신이상은 이후 신기상(申夔相)으로 개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이상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2) 신우상은 체제공이 평안도 관찰사에 부임하자 그를 전송하는 글을 지어 올렸고, 이후 체제공은 신우상이 경성통판(鏡城通判)에 임명되자 그를 전송하는 글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신이상은 개인적으로 정범조와 만남을 가졌고, 신광수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문집 정리와 관련하여 정범조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신석상도 정범조·목만중과 친분이 있었고, 여주 이씨 성호가 문인들과도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몇몇 사례들만 통해 보더라도 이들이 부친의 인맥을 이어 근기 남인 계열의 문인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병찬 편, 『石北 申光洙家 簡札』,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1, 117면, 「신우상이 아버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⁴⁾ 셋째 신위상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문장과 시에서 집안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였고, 특히 5·7언 근체시에 뛰어났다고 한다. 또 신위상은 해서와 초서 등 글씨에도 재능을 보였던 것 같다. 형제 중 가장 부친을 많이 닮아, 당시 사람들이 중국 시인 두보(杜甫)의 시 재능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 두종무(杜宗武)에 그를 비유하였다고 한다.⁵⁾

현재 신우상과 신이상·신석상의 문집이 전해지고 있고, 이들의 생애와 관력, 문집 현황과 전반적인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각각의 작가론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⁶⁾ 또 이들을 석복가라는 가문의 범주로 바라보고 가문의 문학적 특성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다.⁷⁾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석복가⁸⁾의 문학, 특히 한시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우상·신이상·신위상 형제의 「월주수창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삼 형제가 같은 시기·공간에서 같은 제재로 창작한 한시를 통해, 이 집안의 문인들이 어떠한 문학적 지향점을 지니고 창작을 시도하였는지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월주수창록」 관련 작품은 신우상과 신이상의 문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고, 또 고령 신씨 후손가에 소장된 문서가 존재한다.⁹⁾ 그중 가문 소장 문서는 형제들의 시 옆에 평어(評語)·비점(批點)이 병기되어 있어 눈

지 신광수에게 보낸 간찰, “再昨文臣製述時, 又問以此是翰林申某耶. 諸試官皆對以善文矣.”

- 4) 정범조와 목만중의 문집에는 신석상에게 科業 혹은 학문적 방향성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편지글이 확인된다.(정범조, 『海左集』 권18, 「與申德能爽相書」; 목만중, 『餘窩集』 권15, 「與申德能書」.)
- 5) 신이상, 『蕉石集』 권3, 「祭中弟文渭相」, “君於兄弟, 酷似先大人……至於詞華筆札之間, 早聞家庭之教, 尤長於近體五·七言, 清警娟秀之風格, 人稱杜宗武之善選雲誥, 又於楷·草·半行俱能工.”
- 6) 김동준, 「懶雲 申禹相과 그의 詩文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제25집, 돈암어문학, 2012, 125~159면; 장유승, 「신이상(申履相)의 생애와 저술」, 『문헌과해석』 제62호, 태학사, 2013, 257~268면; 채지수, 「대로(大魯) 신석상(申爽相)의 교유와 한시 연구 - 근거 낡은 인맥과 석복가(石北家) 시풍(詩風)의 계승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권9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4, 141~176면.
- 7) 안대희, 「석복가(石北家)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제61호, 태학사, 2012, 207~214면; 김동준, 「雅俗의 교차, 石北 申光洙家 漢詩에 나타난 ‘俗’의 활용 방향」, 『한문학논집』 39호, 근역한문학회, 2014, 205~237면.
- 8) 본고에서는 신광수와 그의 형제들 및 자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석복가’라 지칭한다.
- 9) 이에 대해서는 장유승, 「石北 申光洙家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 78집, 대동한문학회, 2024, 257~287면을 참조할 수 있다.

길을 끈다. 평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평어를 통해 당시 『월주수창록』에 수록된 한시가 어떠한 경향성을 지녔는지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선인들이 한시를 비평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 연구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석북 후손가에 소장된 『월주수창록』의 비평을 분석하여, 평자의 비평 기준과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월주수창록』의 창작 배경과 작품 현황을 소개한다. 신우상과 신이상의 문집, 그리고 가문 소장 문서를 대조하여 작품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신우상 형제들의 『월주수창록』 작품을 고찰하고, 가문 소장 문서에 기록된 평어를 분석하여 가문소장본 『월주수창록』의 비평적 특성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월주수창록』의 작품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석북가 문인들의 공통적인 문학적 지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강원도 영월은 예로부터 어린 임금 단종의 슬픔이 서린 공간으로 강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영월에 전해지는 관련 민요와 설화,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¹⁰⁾ 오래 세월에 걸쳐 형성된 영월의 지역적 특수성이자 감성이다. 특히 조선 후기 영월은 단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관심을 받았다. 숙종 연간에 단종이 복위되고, 영조 연간에는 선왕의 업을 이어 단종복위관련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¹⁾ 『월주수창록』은 신우상 삼 형제의 한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영월과 단종 유배지, 그리고 장릉(莊陵)이 지닌 인문경관의 문학적 형상화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

10) 최명환, 「단종설화의 의식 변이양상」, 『아시아강원민속』 17,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3, 255~285면; 신장섭, 「石北 申光洙의 端宗 관련 시 연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59~382면; 박선에, 「영월 지역 민요의 현대적 수용 양상 - 단종애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511~537면; 김신정,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 설화 연구 :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79~110면 외.

11)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장」, 『史學研究』 98호, 한국사학회, 2010, 41~89면; 김문식, 「18세기 단종 유적의 정비와 <越中圖>」, 『장서각』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72~101면; 박도식, 「엄홍도의 행적과 후대의 追崇」, 『강원문화연구』 제41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20, 29~61면 외.

II. 『월주수창록』의 산출 배경과 문헌의 내용

신우상·신이상·신위상 형제는 부친 신광수가 영월 부사로 있을 때, 당시 61세였던 부친을 모시기 위해 수시로 영월을 찾았다. 신광수의 영월 부사 재임기가 1772년(영조 48) 9월~1773년 12월이었다는 기록을 참조하였을 때, 『월주수창록』의 작품이 창작된 시점은 이즈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월주수창록』의 시 일부는 신우상의 문집 『나운집(懶雲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우상의 문집에는 그의 작품만 수록되어 있고 따로 ‘수창록’이라는 언급이 없어 작품이 창작된 배경이나 형제들과의 수창이 이루어졌다는 단서가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신이상의 문집 『초석집(蕉石集)』에는 그의 한시뿐만 아니라 신우상·신위상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창작한 ‘수창록’임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¹²⁾ 현재 신위상의 문집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 형제의 작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신이상의 문집인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월주수창록』을 참조할 수 있다. 후손가 소장문서는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 위에 초서(草書)로 작품을 썼다. 두루마리 맨 끝에 ‘아우 집옥(신이상)과 기명(신위상)이 각자 단자(單字)를 쓰다[舍弟 執玉·幾明, 各書單字].’라고 명시되어 있어, 신우상의 두 아우들이 직접 자신들의 작품 아래 그들의 자(字)를 써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이상과 신위상의 한시에는 작품 아래 ‘玉[執玉, 신이상의 字]’, ‘明[幾明, 신위상의 字]’으로 단자 표기가 있어, 신이상과 신위상의 작품을 구별할 수 있다. 신우상의 작품에는 별도의 작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다음 표는 신이상, 신우상의 문집과 가문 소장 문서인 『월주수창록』 작품 수록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2) 신이상의 문집 『초석집』의 <망 장릉(望 莊陵)> 제목 아래에 ‘여기부터 월주수창록이 시작된다’는 글씨가 필기체로 기록되어 있다. 신이상의 문집에는 형 신우상과 동생 신위상의 영월 한시 작품을 함께 수록하며, 각 작품마다 작자를 함께 병기하여 밝혀놓았다.

표 1. 「월주수창록」 작품 현황

제목	작자	시체	가문 소장본	초석집	나운집
望 莊陵	신우상	7언 율시	o	o	o
楊淵驛逢候吏	신이상	7언 율시	o	o	x
淸泠浦望 魯陵	신이상	7언 절구	o	o	x
渡淸泠浦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위상	7언 절구	o	o	x
	신위상	7언 절구	o	o	x
錦江亭歌席	신이상	7언 절구	o	o	x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위상	7언 절구	o	o	x
落花巖	신이상	7언 절구	o	o	x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위상	7언 절구	o	o	x
江樓夜歸	신이상	7언 절구	o	o	x
	신우상	7언 절구	o	o	o
	신이상	7언 절구	o	o	x
郡齋夜坐	신우상	5언 율시	o	o	o
越州衙舍	신이상	7언 율시	o	o	x
無題(9수)	신이상	7언 절구	x	o	x
無題(2수)	신위상	7언 절구	x	o	x
無題(4수)	尹國老	7언 절구	x	o	x
謁 莊陵	신우상	7언 율시	o	x	o
	신위상	7언 율시	o	x	x
聞逐虎	신우상	5언 율시	o	x	o
以在外聞 嚴命	신우상(추정)	5언 율시	o	x	x
登程	신우상(추정)	7언 절구	o	x	x
宿神林驛	신우상(추정)	5언 율시	o	x	x
安昌道中	신우상(추정)	7언 율시	o	x	x
近洛	신우상(추정)	5언 율시	o	x	x

위 표는 신이상의 『초석집』에 수록된 작품명과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초석집』은 신이상의 문집이기에, 그의 작품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신우상과 신위상의 작품이 이어서 부운(附韻)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반면, 가문 소장 문서에는 장남 신우상의 작품이 늘 제일 먼저 나오고, 아우 신이상과 신위상의 작품이 부기(附記)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신우상의 작품보다 아우들의 작품을 매번 한 칸 아래쪽에 기록하였다. 가문 소장 문서 『월주수창록』(이하 가문 소장 문서)은 장남인 신우상의 한시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붓글씨 역시 신우상 본인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모두 다른 운자(韻字)로 시를 창작하였고, 같은 제재의 작품일 경우 시체(詩體)는 동일하다. <청령포망노릉(淸泚浦望魯陵)>, <도청령포(渡淸泚浦)>, <낙화암(落花巖)>, <망 장릉(望 莊陵)>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높은 작품이다. <청령포망노릉>과 <도청령포>는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를 배를 타고 건너면서 보이는 주변 풍경을 읊고, 인근에 있는 단종릉을 바라보며 단종과 그에 얽힌 슬픈 역사를 연상하는 작품이다. <낙화암>은 단종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그를 모시던 궁인(宮人)이 투신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암벽이다. 현재까지 영월 단종 유배지와 관련한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신우상 형제들은 낙화암을 찾아 느끼는 황량하고 쓸쓸하며 슬픈 정취를 표현했다. <금강정가석(錦江亭歌席)>은 금강정에서 기녀의 노래와 연주를 들으며 이는 감흥을 읊은 시인데, 결국 비운의 왕이었던 단종의 애환을 떠올리는 주제 의식 측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다. 이 작품들이 실제 『월주수창록』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신이상의 『초석집』과 가문 소장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기록 순서와 제목의 차이가 조금 보이는 정도이다. 이 작품들은 영월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생애를 마감한 비운의 왕 ‘단종’을 떠올리고, 단종과 관련된 장소 및 고사를 통해 영월을 슬픔과 원망이 서린 ‘한(恨)’의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단종의 유배지라는 역사가 빚어낸 공간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조선 후기 문인들의 영월 관련 시문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정서이다. 『월주수창록』의 주요 작품들도 이러한 정감을 수용하였기에, 작품의 주제 의식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주제 의식을 담았어도,

삼 형제의 작품이 저마다의 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보는 묘미가 있다.¹³⁾

한편, <무제(無題)>라는 제목으로 신이상과 신위상·윤국로(尹國老)라는 인물이 남긴 15수의 작품은 신이상의 『초석집』에만 보인다. <무제>는 영월에서 만난 기녀 정향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시(輓詩)이다.¹⁴⁾ 이들이 당시 실제로 영월에 머물며 『월주수창록』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또 석복가 문인들과 기녀들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가문 소장 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신우상과 신위상이 지은 <알 장릉(謁 莊陵)>이라는 제목의 7언율시 두 수 중, 신우상의 작품은 그의 『나운집』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신위상의 작품은 가문 소장 문서에만 보인다. 그밖에 <이재외문엄명(以在外聞嚴命)> 이하의 시도 가문 소장 문서에만 보인다. 이 문서가 신우상의 시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신우상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영월을 벗어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몇 작품의 출입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신우상의 『나운집』과 신이상의 『초석집』, 그리고 가문 소장 문서를 함께 보았을 때, 비로소 『월주수창록』의 전반적인 작품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

13) 부친 신광수와 유사한 시어나 구상을 활용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신이상의 <낙화암>에서는 ‘부르지 말라[莫唱]~’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부친 신광수가 영월 부사 재임기에 지은 <야문자규유감(夜聞子規有感)>의 구법과 유사하다. 신광수는 영월에서 한밤 중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꽃 속에서 피울음을 토하지 마라, 장릉의 모든 한이 이미 평온해졌으니.[如今莫吐花間血, 萬事莊陵恨已平.]’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장릉의 한이 다 평온해졌다는 것은 숙종 연간에 단종 추복 사업을 추진한 이래 영조 연간까지도 선왕의 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당시 영월 부사였던 신광수의 시는 단종의 애사를 떠올림과 동시에 조정의 관리로서 국가를 대변하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신이상은 ‘청령포 노래 한 곡조를 부르지 말라, 온 강가의 사죽(絲竹) 소리 문득 서글퍼지니.[莫唱清泠歌一曲, 滿江絲竹忽淒淒.]’라며, 신광수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되, 억누르기 어려운 한과 슬픔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신이상과 신광수의 시가 유사한 구법을 사용하였으나,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14) 신이상은 영월의 어린 기녀 정향(丁香)을 만나 그와 하룻밤의 인연을 맺게 되지만, 다음날 정향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신이상은 정향과의 인연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가져 오게 된 것을 한탄하며 그를 위한 제문과 만시를 남겼다. 그의 제문과 시에는 정향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장본인이라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혼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녀의 삶을 향한 연민 의식도 담겨 있다.

다. 이러한 점에서 가문 소장 문서가 현대까지 잘 보존되어 전해진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다. 또 가문 소장 문서가 특별한 이유는 비점과 평어가 있기 때문이다. 비점과 평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선인들이 한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엿볼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III. 가문 소장 문서의 비평적 특징

가문에 소장된 두루마리 문서인 『월주수창록』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에 대한 비점과 평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점과 평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월주수창록』의 평어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본 장에서는 가문소장문서 『월주수창록』의 평어를 중심으로 작품의 경향을 확인한다. 또 평자의 시 비평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기 남인 및 석복가의 시적 지향을 함께 살펴본다.

1. 정감의 완곡한 표출 긍정

『월주수창록』의 주요 작품들은 대체로 단종의 애사를 떠올리며 느낀 감흥을 주변의 자연 경물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월주수창록』의 평어들은 단종의 역사와 함께 느껴지는 슬픔과 한의 정감이 함축적으로 담긴 7언절구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였다. 먼저 신이상의 작품이다.

신이상, <청령포에서 노름을 바라보며[淸泠浦望 魯陵]>

서쪽 능을 바라보자 마음이 슬퍼지니	西陵一望使人哀
배가 청령포에 이르러 구불구불 돌아가네	船到淸泠宛轉廻
산봉돌이 갈날 같아 나는 새도 끊겼건만	山似劒巖飛鳥絶
상왕께선 무슨 일로 이 산중에 오셨던가.	上王何事此中來

*평어: 차마 다시 읽지 못하겠다.[不忍再讀]

위 시에서 신이상은 청령포에서 배를 타며 고개 들어 멀리 단종의 능을 바라보았다. 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작자의 마음이 못내 서글퍼진다면 분위기를 슬픔의 정조로 이끌었다. 청령포의 굽은 물길을 따라 떠가는 배 위에서, 작자는 시선을 옮겨 단종이 머물렀던 청령포 인근의 경관을 둘러보았다. 이미 단종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한 작자의 눈에 청령포 인근의 산봉우리들은 서슬 퍼런 검과 같이 차갑고 예리하게만 느껴졌다. 산의 모습을 형용한 ‘예리한 칼날[劍鏃]’은 유배 당시 단종의 마음을 상상하며 작자가 느낀 심상을 표현한 것이다. 심지어 지나가는 새들마저 ‘끊겼다[絶]’는 말은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극도의 고립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 비애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주변을 에워싸고 작은 생명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 속에 ‘왜’ 단종이 있어야 했는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단종의 운명과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한다. 이 시는 첫 구에서 언급한 ‘슬픔[哀]’이라는 감정을 산에 에워싸인 영월의 지형적 특징에서 착안해 표현하였다. ‘차마 다시 읽지 못하겠다’라는 평어는 이 시가 단종의 원통함과 후대인의 안타까움을 그만큼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칭찬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신우상의 시는 청령포를 흘러가는 금강의 물줄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애감을 형상화하였다. 평자는 이 시에 대해서도 비애감의 표출 방식과 관련하여 칭찬을 하였다.

신우상, <청령포를 건너며[渡淸冷浦]>

오랜 세월 흘러가는 금강의 물결	千古潺湲錦水流
상왕께서 떠나신 뒤 배 한 척만 남았구나	上王歸後有孤舟
여울 소리 상전벽해 속에도 변하지 않고	灘聲不爲滄桑變
푸른 산을 감싼 채 긴 밤 내내 시름겹네.	猶繞青山永夜愁

*평어: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라는 다섯 글자가 이 시를 위해 준비된 듯하다.[如聞泣幽咽 五字, 準備此詩.]

신우상은 단종이 승하한 지 오래이지만, 변함없이 흘러가는 청령포의 강

물을 바라보며 자연의 유구(悠久)함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청령포의 ‘물소리’에 착안하여 단종의 생애에 얽힌 슬픔과 한의 정감을 표현하였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에게 사약을 올리고 한양으로 돌아가며 비통한 심정을 노래했다는 시조와 유사한 착상이다.¹⁵⁾ 여기서 ‘상전벽해’라는 구절이 심오하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할 만큼 단종의 역사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사람도 없고, 단종이 자주 올라 시를 읊었다는 누대도 그 자취를 알지 못하건만, 영월을 관통하는 강물만은 변함없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발상이다. 장구한 세월을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의 속성에 단종 역사의 비애감을 더하였다.

비평자는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는 두보(杜甫)의 <석호리(石壕吏)>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신우상의 시가 청령포의 강물 소리를 통해 슬픔과 한을 완곡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두보의 시구를 활용한 평어가 신우상 시의 표현기법과 문학적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신우상의 <금강정가석>이다. 여기서도 평자는 정서의 함축성을 평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상당한 극찬을 남겼다.

슬픈 금(琴) 연주와 노래 속에 푸른 강물 빛나고	琴歌淒嘯綠江明
노란 해는 서쪽 능을 향해서 기울려 하네	黃日西隈欲半橫
이곳은 상왕의 슬픈 원한 서린 곳이라	爲是上王哀怨地
소리마다 모두 자규새의 울음 같구나.	有聲皆似子規聲

* 평어: 한스러운 말이 스며들어 있으니, 이는 옛 사람들도 말하지 못한 경지이다.〔恨語入裏的是古人道不得〕

첫 구의 ‘금 연주와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금강정에서 기녀들의 음악과 노래를 감상하며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1~2구에서 푸른 강물이 빛나고 해가 단종의 능을 향해 기울어지는 표현은 자연물이 금 연주와 노랫소리에 공명(共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구에서 ‘상왕의 슬픈 원한 서린 곳’이라 지칭하였듯이, 이 시에서는 금강정에 울려 퍼지는 연주와 노래, 그리

15) 왕방연의 시조. “千萬里 머나먼 길의, 고운 님 여희옵고, 내 마음 들 띄 없서, 냇가에 안자시니, 더 물도 내 안 곳도다, 울어 밤길 예눗다.”

고 자연현상을 모두 단종과 연결 짓고 있다. 단종의 한을 의미하는 자규새의 울음¹⁶⁾ 대신 금강정의 음악과 노래가 그 역할을 대체하였고, 결국 마지막 구에서는 금강정의 음악과 노래 = 자규새의 울음 = 단종의 한이라는 과정을 통해, 금강정과 장릉이 있는 강원도 영월 일대를 철저히 단종의 한이 가득한 공간으로 형상화했다. 신위상의 시는 현실 세계의 음악과 노래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감정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어 슬픔을 극대화하였고, 이에 호응하는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영월을 한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자연과 인간이 단종의 애사(哀史)에 공감하고 있기에, 이 시에 대한 평어에서 ‘한스러운 말이 스며들어 있다[恨語入裏]’며 극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가문 소장 문서의 평자는 ‘함축성’과 ‘감정의 완곡한 표현’을 중시하였다. 감정을 최대한 완곡하고 함축적으로 제시하기를 선호하되, 자연 경물에 정감을 투영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절구와 율시를 막론하고, 작품의 기저를 이루는 한의 정서가 직접적인 시어로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서술형의 표현으로 제시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신위상의 7언율시 <알 장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위상, <장릉을 알현하며[謁 莊陵]>

서쪽 장릉 바라보니 애간장이 무너질 듯	莊陵西望欲摧腸
*평어: 너무 드러내었다[太露].	
오직 봄의 두견새만 상왕의 일 말하는데	惟是春鶯說上王
한잎 두잎 암벽의 꽃 해와 함께 떨어지고	片片巖花同日落
서늘한 달빛 아래 한 누대가 황량하네	淒淒月下一樓荒
평범한 교외의 사당에서 원혼이 우는 듯	尋常野廟冤魂哭
오열하는 맑은 여울 열사(烈士)의 슬픔이라	嗚咽清灘烈士傷

16) 두견새는 단종의 영월 유배와 관련하여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징성을 지닌다. 단종은 영월의 누대에 올라 읊은 시에서, 두견새를 통해 자신의 슬픈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영월에서 단종의 일을 떠올린 시문에 ‘자규’, ‘두견’의 이미지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월주수장록』에서도 두견새는 단종의 애환을 표현하는 주요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단종, 『열성어제』 권2, <寧越郡樓作>: “月白夜蜀魄啾, 含愁情倚樓頭, 爾啼悲我聞苦, 無爾聲無我愁, 寄語世上苦勞人, 慎莫登春三月子規樓.”)

*평어: 세 글자가 운치에 조금 흠이 되었다(三字差欠韻致).

예로부터 영월의 객 되는 일이 어려우니
 물과 산의 빛깔이 다 서늘함을 발하네.

終古越中難作客
 水光山色盡發涼

평자는 위 시에서 함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지적을 가하였고, 감정을 직접 설명하는 서술형은 시의 운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았다. 첫 구에서 장릉을 바라보며 이는 감흥을 ‘애간장이 무너질 듯하다[欲摧腸]’고 표현한 것을 두고 너무 드러내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정을 완곡하면 서도 절제감 있게 표현하지 않고, 다소 강한 서술형으로 제시한 것이 시의 함축미나 문학적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6구에서는 ‘烈士傷’ 옆에 점을 찍고 이 세 글자가 운치에 조금 흠이 되었다는 평을 하였다. 위 시의 경련에 해당하는 5구와 6구는 대우(對偶)를 이룬다. ‘평범한 교외의 사당[尋常野廟]’과 ‘오열하는 맑은 여울[嗚咽清灘]’이 대를 이루고, ‘원혼의 곡소리[冤魂哭]’와 ‘열사의 슬픔[烈士傷]’이 대를 형성하여 읊시의 구법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다만 사육신을 지칭하는 ‘열사의 슬픔[烈士傷]’이 운치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첫 구절의 평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5구에서는 평범한 사당을 전제로 하여 다음 시어인 곡소리와 반전의 미감을 지니지만, 6구에서는 ‘맑은 여울의 울음’=‘열사의 슬픔’으로 동일시하는 다소 단조로운 구조를 이루었다. 사육신의 상심을 표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곡절(曲折)을 지닌 구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월주수창록」은 지리 공간의 특성상, 단종의 애사(哀史)와 관련된 슬픔과 한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가문소장문서의 평어는 주로 7언절구 시에서 긍정적인 평을 남겼고, 시에서 단종에 얽힌 슬픔과 한의 감정을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하였는가를 비평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때 직접 감정에 관한 시어를 노출하거나 서술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지양하였고, 자연 경물을 묘사하는 가운데 완곡하고 함축적인 방식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의 기준은 당시풍(唐詩風)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한다.

2. 근기 남인 가문의 시적 기준 공유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본 가문소장문서의 평어들을 종합하여 보면 평자의 시적 취향과 『월주수창록』의 작품이 모두 당시풍(唐詩風)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작품의 평어만을 모아놓고 보았을 때, 그 성격이 당시풍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비평만을 다시 모아 제시한 것이다.

- ㉠ 신이상, <清泠浦望魯陵> 평어: 차마 다시 읽지 못하겠다.[不忍再讀]
- ㉡ 신우상, <渡清泠浦> 평어: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 하네’라는 다섯 글자가 이 시를 위해 준비된 듯하다.[如聞泣幽咽 五字, 準備此詩.]
- ㉢ 신우상, <錦江亭歌席> 평어: 한스러운 말이 스며들어 있으니, 이는 옛 사람들도 말하지 못한 경지이다.[恨語入裏的是古人道不得]
- ㉣ 신이상, <江樓夜歸> 평어: 성조가 처량하고 슬프니, 마땅히 중당(中唐)의 훌륭한 품격이다.[聲調淒黯, 當爲中唐佳品.]

앞서 보았듯이, ㉠, ㉡, ㉢에서는 단종의 한과 슬픔의 정서를 제한된 분량 안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위 작품들은 모두 경물 묘사에 중점을 두면서 슬프고 처연한 심상(心象)을 7언절구라는 짧은 분량 속에서 구현하였다. ㉡의 평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청령포의 강물이 오랜 세월 흐르며 슬피한다는 표현에 대한 것이다. 강물은 실제 청령포의 자연 경물이면서 단종의 슬픔을 투영하는 소재가 되었다. 정서의 표현을 중시하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경향, 경물 묘사를 통해 정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여운의미를 지향하는 것은 전형적인 당시풍의 특징이다.¹⁷⁾ 또 ㉣에서 중당풍(中唐風)의 처연한 성조를 잘 구현했다는 평어

17) 당시풍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많다. 안병학, 『朝鮮 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화연구』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0, 119~145면; 이종목, 『조선 전기 한시의 당풍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2005, 207~238면 외 다수. 또 유진희는 그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당·송풍의 특징을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다.(유진희, 『당송풍으로 본 조선초기 시풍의 이해』, 학자원, 2023, 39~40면 참조.)

는 「월주수창록」에 수록된 신우상 형제의 7언절구가 성음(聲音)의 측면에서 당시풍을 구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월주수창록」의 평어 중에는 송시풍에 관련된 언급도 있어 참고가 된다.

신우상, <양연역에서 아전을 기다리며[楊淵驛逢候吏]>

양연역에서 말 바꾸며 새 아전을 기다리니	楊淵驛騎候新官
외로운 화각 소리 찬 뒷산에 불어오네	畫角孤吹背嶺寒
나무 위에 나란히 나부끼는 양 청사의 깃발	木末齊飛旗兩廳
구름 끝 다함 없는 일천 굽이 길이로다	雲端不盡路千盤
가마 타고 산 정상을 오르며 늘 경계하다	懸輿絕頂心常戒

*평어: 세 글자는 송시(宋詩)의 어조로 조금 건너갔다[三字稍涉宋調].

너른 언덕 말을 매니 비로소 편안해져	歇馬平阜意始寬
시야 가득 가을 풍경 영월이 가까우니	滿目秋光知近越
내일이면 청령포의 여울을 어찌 건널까.	更堪明日過清灘

위 시는 신우상이 영월로 향하는 여정 중, 양연역에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아전을 기다리며 지은 것이다. 산자락에 위치한 역 주변의 시각·청각적 묘사를 통해 처연한 심사가 느껴진다. 경련에서는 험난한 지형을 지나 온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험준한 고개를 오르며 행여 다칠까 긴장하고 조심하다가, 평탄한 언덕에 이르러 비로소 편안해지는 마음 상태의 변화를 말하였다. 5구의 높은 곳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늘 경계한다는 표현은 사뭇 도학자의 자세를 보여준다. 삶 속에서 내면의 수양을 중시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개 송시풍의 특징으로 언급된다.¹⁸⁾ 유사한 사례로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의 시를 들 수 있다.

배 위에서 초승달을 구경하는데	舟中見新月
안개 물결 추위를 견딜 수 없어	烟浪不勝寒
취해 잠든 객들에게 물어볼래도	與問醉朝眠客
나아갈 길 험난함을 어찌 알겠나	豈知行路難

18) 유진희, 앞의 책, 학자원, 2023, 39면 참조.

석양 빛은 수면 위에 아직 남았고	殘陽猶水面
외기러기 구름 끝에 다시 보이네	孤鴈更雲端
선창 아래 오늘 밤에 이는 생각은	篷底今宵意
좋은 시절 잘 마무리 하는 것이네. ¹⁹⁾	天邊芳歲闌

이 시는 주자가 일행들과 배를 타고 가던 저물녘에 지은 시이다. 4구의 ‘行路難’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실제 그가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의 험난함을 지칭한 것이기도 하며,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동반되는 고뇌와 시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삶의 험난함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악부시(樂府詩) <행로난>을 연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우상의 시 ‘心常戒’도 실제 영월로 향한 험난한 길을 가는 필자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늘 몸가짐을 삼가야 하는 서울 생활에서 벗어나 부친을 모시기 위해 영월로 가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험을 통해 삶의 이치를 관조하고 성찰하는 모습, 마음을 다스리고 경계하는 태도에서 평자는 송시풍의 이지적(理智的)인 어조(語調)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금 건너갔다[稍涉]’라는 평자의 말은 결국 가문소장문서의 평자가 당시풍을 비평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 문인들이 송시풍보다 당시풍을 선호하는 태도는 17세기부터 일어난 시대적 경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기 남인 문인들은 한위고시(漢魏古詩)와 당시(唐詩), 두보시(杜甫詩)를 지향하였고, 이와 같은 시적 기준은 집안 및 동일 정치 집단을 통해 18세기까지 유지되었다.²⁰⁾ 근기 남인에 속했던 석복가의 시 의식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²¹⁾ 신광수는 평소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한위고시, 그리고 당풍과 두보를 시의 전범으로

19) 朱熹, 『雅誦』, <舟中見新月, 伯崇·擇之二友, 皆已醉臥, 以此戲之>

20) 조선 후기 근기 남인들의 문학과 시적 전범, 그리고 계승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부유섭, 『17~18세기 중반 近畿南人文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윤제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외 다수.)

21) 윤제환, 앞의 책(2012)에서는 근기 남인 문인들의 문학과 시적 경향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광수를 비롯한 근기 남인 계열의 문인들이 대체로 당풍을 지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한(秦漢)의 고문을 전범으로 삼고, 한(漢)·위(魏)의 고시(古詩)와 당풍(唐風)을 지향한 것은 석복가 문인들을 비롯한 근기 남인 문단 내에서 공유된 문학관이다.

추구하였다. 신이상도 자신의 학시(學詩)에 대해 언급하며, 부친 신광수가 선진 양한(先秦兩漢)의 글을 전범으로 삼고 삼당(三唐)의 시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²²⁾ 신광수가 송대 문인들의 시를 배제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가장 이상적인 시의 표준으로 당시풍을 추구하였고, 이를 아들에게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당과 그 이전의 시를 전범으로 삼았던 근기 남인 문인 가운데에는 송풍 이하의 시를 본받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다.²³⁾ 일례로 근기 남인 계열 문인 강박(姜樸)은 지인의 시를 비평하면서, 당시풍의 시구를 칭찬하고, 송시풍의 경향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월주수창록』의 평자와 유사한 시각이다.

5연의 ‘산골짜기 햇살이 비취들이 드물고, 얼음 냇물 희미하게 들려오네.’라는 구절은 구상이 정치하고 심오하여 자못 두보의 구법을 얻은 듯하다……7번째 연에 이르러서는 ‘노송나무 하늘 뚫고 바야흐로 쓰러지니, 못 산들은 저녁 향해 마침내 조용하네. 긴 숲은 해를 막아 마을마다 저녁이고, 못 골짜기는 가을이라 나무마다 춤구나. 물가 집의 밭에는 백로가 많아, 화산에서 곡식 거두니 절반은 단풍이라.’ 등의 말은 비록 송나라의 어조에 끌려감을 면치 못하였으나, 의관을 받듯 하게 정제한 듯 음절이 강건하면서도 밝아 고인의 시를 추구하였다……결구의 ‘강선대’ 이하의 말들은 글자마다 당인의 소리요 어투이다.²⁴⁾

위 글은 강박이 족질(族姪) 강필신(姜必愼)의 사군(四郡) 유람시에 남긴 비평이다. 작품 가운데 주요 구절을 들어 평을 하였다. 5연과 후반부의 구절에 대해서는 당풍을 흡사하게 구현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칭찬하였다. 그러나 7연에서는 송나라의 어조가 나타나는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

22) 신광수, 『石北集』, 張錫龍이 쓴 서문. “詩則忠愛闊遠, 專尙少陵, 固可謂近世之宗匠而得其正音者也.”; 신이상, 『蕉石集』, 『書春州雜咏後示兒序』, “家大人授以古樂府·騷選·班·馬·左·國及老壯, 三唐等詩, 文必以先秦東西京爲發軔之初地…….”

23) 조선 후기 근기 남인 문인들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던 시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여운필, 『오광운(吳光運)의 시인식(詩認識)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273~305면; 백승호, 『芋亭 李惠貞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6권, 한국한시학회, 2012, 251~275면; 윤재환, 앞의 책, 2012 외.)

24) 강박, 『菊圃集』 권11, 『又書四郡詩評後』, “五聯之峽日無多照, 冰泉有暗聞, 思致深奧, 頗得老杜遺法……當行七聯之古檜沖霄方偃蹇, 羣山向夕遂從容, 長林礙日村村夕, 衆壑分秋樹樹寒, 水戶有田多白鷺, 火山收稷半丹楓等語, 雖不免挖帶宋調, 而冠裳齊整, 音節過亮, 求之古人……結語之降仙臺下, 字字是唐人聲口.”

였다. 강박은 당풍에 대한 지향이 강했던 근기 남인 계열 내에 공유된 시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를 비평할 때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월주수창록』의 평자 역시 이와 같은 근기 남인의 시적 기준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문 소장 문서 『월주수창록』의 평자는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구절에 비점을 찍었는데, 이 또한 근기 남인들의 시 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지점이다.

신우상, <장릉을 알현하다(謁 莊陵)>

강가의 푸른 산봉은 바로 구의요	江上青峯是九疑
옥 의복은 서리 이슬 차갑게 드리웠네	玉衣霜露冷垂垂
오직 두견 울음만이 봄날 산중 들려올 뿐	惟聞鶉哭春山夜
누가 봤을까 임금께서 승하하던 날의 일	誰見龍飛鼎水時
신하들은 감히 그날의 일 말하는데	臣子敢言當日事
*평어: 국풍시의 뜻을 지녔다(有國風詩人意).	
백성들은 외려 지금껏 슬퍼할 뿐이라네	國人猶作至今悲
정령이 한 몸으로 길이 가까이 있어	精靈一體長隣近
정자각 주렴 앞에 여섯 사당 함께 있네.	丁字簾前又六祠

위 시는 신우상이 단종의 능인 장릉을 찾아 지은 것이다. 낮선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 단종의 슬픈 운명에 대해 말하였다. 첫 구의 ‘구의(九疑)’는 중국 순(舜) 임금이 순행(巡行)하다 승하하여 묻힌 지명이다. 이 시에서는 단종릉을 지칭한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거론하는 조정 신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린 왕의 생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민심을 대비시켰다. 민심을 통해 조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경』 국풍의 정신이 엿보인다는 평을 한 것이다.

육경(六經) 가운데 하나인 『시경』은 한시의 원류로 조선 문인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근기 남인 계열의 경우, 미수 허목이 주창한 상고적(尙古的) 문학관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경』 국풍을 이상적인 시의 기준으로

로 삼았다. 특히 민간의 풍속과 민심을 반영한 국풍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 조선 후기에 『시경』을 풍자 혹은 교화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두 견해가 존재하였는데, 풍자의 뜻이 담긴 간서(諫書)로 인식한 인물로는 윤휴, 권철신, 정약용 등 근기 남인 계열에서 주로 확인된 바 있다.²⁵⁾ 신광수 역시 『시경』을 시의 원류이자 지향점으로 삼았고, 『시경』 시의 사회적 효용을 매우 중시하여, 이를 궁극적인 시의 목표로 강조한 바 있다.²⁶⁾ 위 시의 평자가 『시경』 국풍 정신과 유사한 구절에 굳이 비점을 달아 높이 평가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가문 소장 문서의 후반부 작품 상단에 평자는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월주수창록」 수록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엄명을 듣다> 이하의 시들은 대부분 <금강정> 앞의 시들에 미치지 못하니, 저 시들(<금강정> 앞의 시)은 강과 산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쪽의 시들은 행역(行役)의 피로함 때문에 이치와 기세가 참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²⁷⁾

평자는 <도청령포>, <금강정가석>을 비롯한 전반부 작품들과 비교하여 후반부 작품인 <등정(登程)>, <숙신림역(宿神林驛)>, <안창도중(安昌道中)>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하였다. 후반부 작품들은 신우상이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영월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지은 시로 추정된다. 이 시들은 가는 여정을 서술하고 왕명을 받들어 길을 재촉하는 시인의 고뇌와 무거운 마음, 여정의 피로함이 주를 이룬다. 평자는 전·후반부 작품의 우열이 나뉘게 된 요인으로 ‘강산의 도움’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부 작품이 영월의 아름다운 산수 자연 속에서 노니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정감이 발로된 결과물이라 높은 문학적 성취가 나오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산수 자연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성정이 발하여

25) 김홍규,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박무영, 『白湖尹鑰의 詩經論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9권, 한국한문학회, 1987, 121~146면 외.

26) 신광수가 세교(世敎)에 보탬이 되는 효용론적 문학관을 지녔다는 사실은 이기현, 『石北申光洙 文學 研究』, 보교사, 33~46면을 참조할 수 있다.

27) 가문소장문서 「월주수창록」. “聞嚴命以下諸作, 多不及錦江亭上語, 在彼則有江山助, 在此則爲行役困, 理勢固應爾耶.”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다음 시는 비평자가 저평가한 후반부 시 가운데 하나이다.

신우상(추정), <신림역에 숙박하며[宿神林驛]>

군재(郡齋)에서 아침에 술잔을 들고	郡齋朝把酒
산속 여관 저물녘 연기를 찾네	山店暮尋烟
울타리에 쌓인 눈 찬 기운을 슬며시 불고	籬雪微吹冷
창가 등불 앞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네	窓燈不備眠
나아가면 오직 죄를 더할까 두렵고	行惟添罪恐
*평어: 모든 구가 속되대[全句俗].	
누운들 감히 몸을 편히 붙여둘 수 있으랴	臥敢貼身便
별과 달이 뜬 안창 가는 길을 향해	星月安昌路
한 마리 말 재촉하여 일찍 떠나리	催呼一先馬

위 시의 공간적 배경인 신림역(神林驛)은 강원도 원주목에 위치한 역원이다. 저물녘 숙박을 위해 신림역에 머물렀지만, 일정이 늦추어질까 근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영월의 깊고 그윽한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가운데 단종의 한과 비애의 정서를 담아낸 전반부의 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을 주된 정서로 하면서도 높고 엄숙한 기상을 지닌 앞의 시와 달리, 신림역 시는 엄명을 받고 길을 가는 작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심으로 다소 위축된 어조이다. 평자는 위 시의 5구 옆에 ‘모든 구가 속되대[全句俗]’라며 부정적인 평어를 남겼다.

일찍이 신광수는 과시(科詩)의 폐단을 지적한 글에서 과업(科業)에 구속된 시대적 경향과 관습적인 표현에 대해 ‘속되다’고 말하며, 이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성정지학(性情之學)’을 강조한 바 있다.²⁸⁾ 또 신광수가 훌

28) 신광수는 과시(科試)의 한 종류인 행시(行詩)에 대해 말하며, 어릴 때부터 과제를 익힌 조선 문사들이 과제에 몰두하다 친편일률적인 문장과 시를 짓게 되었고,性情之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신광수, 『석북집』 15, 『近藝雋選序』, “行詩者,我國之科體也……習自童丱,能於是者,號才士,不復知有詩人性情之學,故國朝以來,雖館閣鉅手,其詩大抵千篇一套,淺陋不足觀,我國之詩,不惟風氣所局,亦由科體之爲累已……以諸君之才,乘其年力,鼓而自奮,移夫攻學業者,求所謂古人之詩,則吾知蔚然一代鳴國家而振大雅者,其將在斯,顧弊弊然羣驚於淫俗之途乎.”)

룡한 시 창작의 요소로 ‘성정(性情)’을 강조한 점은 그가 정범조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광수는 정범조에게 시유(詩遊)를 권하며, ‘벗들이 모여 정경(情景)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자연의 신(神)이 발동하게 된다’라며, 훌륭한 시 창작의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²⁹⁾

신이상에게도 동일한 관점이 보인다. 신이상은 춘천 유배지에 머물며 지은 자신의 시들을 아들에게 설명하면서, 관직 생활에서 벗어나 춘천의 자연 속에 자유로이 노닐었기에 득의작(得意作)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³⁰⁾ 신광수와 그의 아들이 시 창작에 있어서 자연 속에서 소요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정신과 천성(天性)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문 소장 문서의 평자가 신광수임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후반부 작품들을 저평가하며 ‘자연의 도움’을 강조한 점, <숙신림역>에 속되다는 평을 한 것은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월주수창록』에서 영월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자연 속에서 발현된 ‘성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신림역의 시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가문소장문서 『월주수창록』의 평어를 종합적으로 보면 신광수 가문의 시적 관점, 그리고 근기 남인의 시 의식과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다. 평자는 자연 경물 묘사를 통해 정감을 완곡하게 표출하는 당시풍이 구현된 지점들을 높게 평가하였고, 송시풍의 어조가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시경』 국풍의 정신이 엿보이는 부분은 비점을 찍어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시 창작의 동기 측면에서 자연 속에 노닐며 자연스러운 성정의 발로를 중시한 면은 신광수의 시 의식과 맞물리기도 하였다. 『월주수창록』의 평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평자 역시 석복가의 문학관 내지는 근기 남인의 문학관을 공유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29) 신광수, 『石北集』 권11, 『與法正』. “盛唐李·杜諸公, 何渠不若今之學者乎. 如以小技而廢酬唱, 則朱子必不與張敬夫爲南嶽之游矣. 要之朋友會合, 情景相值, 自然神動, 發之吟咏, 是亦天理流行中一事, 風蟬雨蚓, 得其候則鳴耳.”

30) 신이상, 『초석집』 권3, 『書春州雜咏後示兒序』. “江山秀麗, 野疇平曠, 又有樓臺之勝, 亦足以娛游于之, 而忘謫懷者, 余旣無所寓心, 凡其壹鬱無聊與夫得意會心處, 一於詩文以發之, 凡得詩五七言律絕句……使余不到此, 而汨於京司升斗之祿與下邑米鹽之間, 則亦安有此也.”

IV. 결론

본고는 석북 신평수의 아들 신우상·신이상·신위상이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창작한 한시 『월주수창록』을 연구하였다. 신우상 형제의 문학적 성취를 떠나 석북가의 일원으로 이들의 공통된 한시 창작 경향과 지향점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였다. 특히 가문소장본 『월주수창록』에 기록된 비점과 평어에 주목하여, 한시 비평 기준과 관점의 지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평적 특성으로 함축성의 강조와 당시풍의 선호, 『시경』 국풍 정신의 중시라는 시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 기준은 당시 근기 남인 계열 문인들의 시 의식과도 공유되는 지점이다. 비평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석북가의 문학관 내지 근기 남인 계열의 문학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료는 신평수의 아들들이 근기 남인 계열의 문학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추가로 삼형제의 『월주수창록』이 지니는 의미를 개괄하자면, 『월주수창록』은 석북가 후손인 세 사람의 한시 창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예컨대 기악(伎樂)과 관련하여 석북가 문인들이 지녔던 풍류와 기녀와의 친밀성이라는 공통적인 문학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기악에 대한 관심을 두고 기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석북가 문인들이 기녀의 삶이나 기예(技藝)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학 속에 수용한 양상을 『월주수창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끝으로 신우상 형제들의 『월주수창록』은 강원도 영월지역의 인문 지리 연구 측면에서도 유용한 자료이다. 세 사람은 영월에서 단종의 역사를 주제로 한 시를 창작하였고, 영월의 산과 강, 두견새라는 자연물을 통해 ‘한’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세 사람은 동일한 주제 의식을 하에 유사한 소재와 시어·구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시의 구상과 문학적 효과는 저마다 다르다. 단종의 역사로 형성된 영월의 인문경관이 신우상 삼형제의 『월주수창록』에서 형상화된 방식은 조선 문인들의 영월 인식과 시적 형상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姜樸, 『菊圃集』
端宗, 『列聖御製』
陸萬中, 『餘窩集』
申光洙, 『石北集』
申禹相, 『懶雲集』
申履相, 『蕉石集』
丁範祖, 『海左集』
朱熹, 『雅誦』
신광수 후손가소장문서, 『越州酬唱錄』

2. 단행본

김홍규,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유진희, 『당송풍으로 본 조선초기 시풍의 이해』, 학자원, 2023.
윤재환, 『조선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이병찬 편, 『石北 申光洙家 簡札』,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1.

3. 논문

김동준, 『懶雲 申禹相과 그의 詩文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제25집, 돈암어문학, 2012, 125~159면.
김문식, 『18세기 단종 유적의 정비와 <越中圖>』, 『장서각』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72~101면.
김신정,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설화 연구 :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79~110면.
박도식, 『엄홍도의 행적과 후대의 追崇』, 『강원문화연구』 제41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20, 29~61면.
박무영, 『白湖 尹鏞의 詩經論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9권, 한국한문학회, 1987, 121~146면.
박선애, 『영월 지역 민요의 현대적 수용 양상 - 단종애사를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511~537면.
백승호, 『茅亭 李惠胄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6권, 한국한시학회,

- 2012, 251~275면.
- 신장섭, 『石北 申光洙의 端宗 관련 시 연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59~382면.
- 여운필, 『오광운(吳光運)의 시인식(詩認識)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6,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0, 273~305면.
- 안병학, 『朝鮮 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화연구』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0, 119~145면.
- 이종목, 『조선 전기 한시의 당풍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2005, 207~238면.
- 장유승, 『신이상(申履相)의 생애와 저술』, 『문헌과해석』 제62호, 태학사, 2013, 257~268면.
- _____, 『石北 申光洙家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 78집, 대동한문학회, 2024, 257~287면.
- 채지수, 『대로(大鹵) 신석상(申奭相)의 교유와 한시 연구 - 근기 남인 인맥과 석북가(石北家) 시풍(詩風)의 계승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권9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4, 141~176면.
- 최명환, 『단종설화의 의식 변이양상』, 『아시아강원민속』 17,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3, 255~285면.

A Study on the Criticism Recorded in *Wolju Suchangrok*
of the Seokbuk Shin Gwang-su Family

Chae, Jeosoo

This paper examines the stylistic and critical characteristics of *Wolju Suchangrok*, a collaborative work created by three of Shin Gwang-su's five sons: Shin Woo-sang, Shin Yi-sang (Shin Gi-sang), and Shin Wi-sang. *Wolju Suchangrok* refers to a collection of Chinese poetry written in 1772 by the three sons who accompanied their father, Shin Gwang-su, during his appointment as the governor of Yeongwol. Currently, some of these works are included in the literary collections of Shin Woo-sang and Shin Yi-sang, while additional content exists in the form of a scroll preserved by the descendants of the Seokbuk family.

This study compares the three document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works and explores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preserved manuscript. The three brothers focused o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tragic history and sorrow of King Danjong, who was exiled to Yeongwol. They effectively utilized the natural scenery of Yeongwol and the imagery of the cuckoo bird in their works. The critic of the family-preserved manuscript highly praised the brothers for expressing their thematic consciousness in a concise and subtle manner through natural imagery in seven-character quatrains. The critic also commended their avoidance of overt emotional exposure and narrative-style diction.

These observations reflect the writers' and critic's aspirations toward the Tang-style poetic tradition. Furthermore, their emphasis on the *Shijing* (Book of Songs)'s *Guofeng* spirit and their focus on literary achievements rooted in nature align closely with the poetic consciousness shared among the Geungi Namin. This suggests that the critic likely shared the poetic ethos of the Geungi Namin and that the three brothers were nurtured within this literary tradition.

Keywords : Gangwon Province's Yeongwol, King Danjong, Geungi Namin, Chinese
Poetry Criticism, Shin Woo-sang, Shin Yi-sang (Shin Gi-sang)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게재결정: 2024. 11. 10.